

단청 문양의 미적 가치와 현대적 문화상품 개발 연구

김민자* · 이진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범세계화와 더불어 세계는 지금 활발한 문화, 경제교류를 함과 동시에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이러한 글로벌리즘시대에 있어서 기업이나 국가는 생존과 변화를 위한 시급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고유 가치만이 생존을 위한 주요한 전략이며, 차세대 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문화 속에 자국문화의 생존과 생성의 한 전략으로서 고유한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우리 것만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웃의 문화를 존중하고 세계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적 시각에서 본 문화상품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만의 옛것을 정지된 상태로 복원함을 의미함이 아니요, 적극 세계적 문화 트렌드를 수용하면서 우리의 문화의 특이성을 접목시킴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적으로 뚜렷이 드러내는 단청을 응용한 문화상품개발 (침장류, 컵 받침, 테이블 매트, 가방)이 주된 목적이다. 단청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건물의 벽, 기둥, 천장 등에 청, 적, 황, 백, 흑색의 오방색과 그 간색으로 문양과 그림을 그려서 의장하는 것을 일컫지만, 서, 회화, 조각품, 공예품등에 채화하는 개념을 통틀어서 의미하며, 아시아권에서도 한국의 단청이 가장 섬세하며, 현존하는 것이 많을 뿐 아

니라 현재에도 그 작업을 보존하고 있다. 단청은 동양인의 음양오행에 대한 미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가시적 조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레나 질서 등의 형식을 중시하는 서구인들의 미학과는 달리, '혼돈' 속의 조화를 추구하며 음양오행의 유기적인 자연관이 잘 드러나 있었다. 특히 단청은 특이한 표현양식으로 한 눈에 동양적임을 알 수 있으며, 문양의 추상적 표현과 그래픽적 표현은 현대성파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다.

최근 아시아문화, 혹은 Ethnic Look이 서구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 장식적인 트리밍이나 자수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식 트리밍으로 그 활용이 많은 단청 테이프를 개발하고자 Lamb & Kallal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특히 단청의 다양한 문양 중 연화문 채택하였고, 생산을 위하여 1차의 전사기법에 의한 테이프개발, 2차의 라벨(label)짜는 직기에 의한 개발, 3차의 자가드에 의한 개발을 시도하였다. 색상은 웰빙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하여 천연염료(먹물, 황토, 쪽, 선인장)를 이용하여 염색되었으며, 검정색, 갈색, 남색, 비취색등을 시도하였다.

디자인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의하여 평가되었으며, 우수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파리에서 개최되는 메종 오브제외 전시회에 초대되었다. 개발된 상품은 사진으로 첨부되었다.